

협회, 이명박 대선 후보와 벤처기업 정책간담회 가져

- 협회를 비롯한 4개 벤처유관기관 벤처현안 건의



협회(회장 백종진)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1월 19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벤처성공시대를 열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간담회는 협회를 비롯 바이오벤처협회(회장 박종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회장 한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배희숙), IT벤처기업연합회(회장 서승모)등 벤처업계 회장과 단체 시장들이 참석, 각종 건의사항들을 허심탄회하게 제시하였다. 벤처산업연구원 한정화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참석한 벤처대표들이 건의사항을 제시하고, 이명박 후보가 이에 대한답변을 제시하는식으로 진행, 다양한산업분야의 이슈및 열악한벤처기업 전반의 상황에대해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이 후보는 시작에 앞서 "기업 지원 정책을 좀 더 과감하게 해야 한다. 여러가지 경험 하신 바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제안을 하시면 귀 기울여 들도록 하겠다"며 간담회에 임하는소감을 밝혔다.

정책간담회의주요 건의안으로는 ▲PTV법제화 및 방통융합 ▲정보 보안 사업 육성 ▲서비스산업 육성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확보 방안 마련 및 바이오벤처분야육성 ▲벤처 공장설립요건완화 ▲벤처 장기 근속자에 대한 주택지원강화 ▲벤처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우선 사용 ▲대기업 거래시 시장 확대 지원책 등이 발표되었다. 특히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으로 갈라진 정부의 업무영역 통합과 중소기업 전담 지원기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두드러졌다.

이에 이 후보는 전반적인 의견 공감과 함께 "(중기청의)부서 승격이 아니라 해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전담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출했다. 해외시장 개척문제, 신사업 분야 지원문제에는 "과거의 정책과 차별화 된 '맞춤형'으로 갈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중소기업벤처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 백종진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차기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수"라며 "이번 벤처기업정책간담회 이외에도 정책결정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벤처관련 정책방향과 핵심 의제를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국 AIM 상장안내 설명회 열려

- 협회 런던증권거래소 초청, 성황리에 개최



협회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자본조달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와 공동으로 '영국 AIM 상장안내 설명회'를 지난 11월 21일(수),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해외 자본시장 진출의 일환으로 영국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상장을 희망하는 국내 관련 기업들에게 유용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이날 행사는, 런던증권거래소의 아주지역 담당이사(Mr. Naomitsu Abe/나오미쯔 아베)와 국내 관련전문가 및 해외자본조달시장의 참여를 희망하는 벤처기업대표들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런던증권거래소를 대표해 연사로 나선 Naomitsu Abe 이사는 AIM 시장의 현황과 상장을 위한 절차 및 제반사항을 설명하였고, 타 시장에 비해 유연한 상장요건을 갖춘 AIM시장을 활용하여 국내기업이 효과적인 자금유치와 대외 인지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아베 이사는 "런던증권거래소 본사 차원에서 성장성과 잠재력이 탁월한 한국 벤처기업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향후에도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유망기업들의 발굴과 런던증시 상장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M시장은 1996년 런던증권거래소가 설립한 대안시장으로서 중소기업의 상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장절차를 간소화 한 것이 특징이며, 최근 한국을 비롯한 각국 중소기업들의 대안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2007년 10월 현재 AIM의 총 상장기업 수는 1,678개로서 런던증권거래소 Main Market의 상장기업수를 추월하였으며, 이 중 해외기업은 334개가 상장되어 있다.

백종진 협회장은 "최근 국내 중견벤처기업들의 해외자본시장 참여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미국, 영국, 홍콩, 일본 등 해외 주요 시장들에의 상장 지원을 위한 협회차원에서의 시스템이 곧 구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